

풍요 · 행복 기원 ‘전주단오’ 열린다

시, 19~20일 덕진공원 일원서 개최... 전통 프로그램 · 공연 · 먹거리 등 풍성

우리나라의 5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맞아 새롭게 단장한 덕진공원에서 올 한 해의 풍요와 행복을 기원하는 전주단오 행사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2026 전주단오'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 전주단오는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 행사장 위치를 공익전반으로 확대해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문화·여가·휴식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단오는 크게 △전통마당 △창포마당 △먹거리마당 △체험마당의 4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문화예술공연과 부대프로그램, 연계행사가 덕진공원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행사 첫날인 오는 19일에는 전주 시민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의례인 풍년기원제를 시

작으로 올해 전주단오 행사의 문을 연다. 이어 활력 넘치는 합죽마을의 기적놀이 축하공연이 펼쳐져 행사장의 흥을 돋우고, 전통 세시풍속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있는 전주단오의 서막을 알린다.

또한 이날 '제68회 전주 시민의 날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매년 단오날을 시민의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단오 행사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전주 시민대상과 모범시민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세시 풍속 체험이 마련된다. 무더위를 날려줄 △창포머리감기 △창포위터널 △단오운동회가 진행되며, 단오운동회 현장에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흥보부스도 함께 운영돼 시민들과 스포츠의 가치와 올림픽 유치의 의미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연출하게 된다.

또, 창포주와 수리취떡을 나눠주는 '세시음식 나눔 행사'도 진행되고, 단오날 즐겨마시던 창포주, 제호차와 함께 전통 간식을 곁들인 '단오 한상' 단오에 취하다' 체험 프로그램은 하루 40명 한정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경연과 전통놀이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에는 △전주단오 장사씨름대회(남녀 성인부 및 이벤트 경기) △달맞이꽃 종식웃놀이 대회가 펼쳐지고, 이외에도 소원지 달기와 전통공예품 만들기, 쌍륙, 고누, 단오부적, 정명루 만들기, 공기게임 체험, 한궁 체험, 그네 체험 등이 상시 운영된다.

여기에 공연 곳곳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시는 잔디광장을 피크닉존으로 활용하고, 연지문 앞에는 배달 픽업존을 운영해 다채로운 감성 나들이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먹거리

마당에서는 전주지역 봉사단체의 참여 속에 단오 한상과 푸드트럭, 수제 맥주, 전통 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동시에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공연도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올해 전주단오에서는 △LED무용공연 △시보잉시커스 △조선팔공연 △버스킹공연 등 현대적 감각의 공연과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등 격조 높은 무대까지 만날 수 있다. 또, 피크닉존과 맘껏술놀이터 등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관객친화형 공연이 펼쳐진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전주단오는 전통 세시풍속의 원형 보존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문화와 휴식의 가치를 더했다"면서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추억 속 단오를 되살리고,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로서 새로운 단오의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남부권 광역교통거점 시설 구축해야”

양영환 전주시의원, 광역버스정류장 조성 등 정책 반영 촉구



1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영환 의원(사진)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 남부권 광역교통거점 시설 구축을 촉구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은 전주 남부권이 광역교통 관문으로 부상함에 따른 광역교통거점 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새만금 고속도로 개통과 남전주IC 연결 및 대관람개 등 정 등으로 전주 남부권이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주요 광역교통시설은 도심권과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고속·시외버스 정차, 시내버스·택시·주차시설이 연계된 남부권 광역버스정류장(환승 거점) 조성 △화물터미널 및 공동물류 시설 등 물류 지원 기능 검토를 제안하고 전주시 교통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운영

팔복예술공장 · 조촌동주민센터 · 팔복동주민센터 주차장 등 3대

전주시가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공병 반환 편의를 돕기 위해 무인회수기를 운영한다. 시는 팔복예술공장 · 조촌동주민센터 · 팔복동주민센터 주차장에 각각 1대씩 총 3대의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지난 15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무인회수기의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시는 무인회수기를 시범적으로 광일 낮 위주로 운영한 후, 향후 시민들의 이용 추이와 요구에 맞춰 운영 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빈용기 무인회수기는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빈병을 투입하면 병의 종류와 규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연동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규격별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기기다.

시는 이번 무인회수기 도입을 통해 그동안 소량의 공병을 반환할 때 수퍼·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매점들의 반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스캐지거나 내부가 오염된 병 △재사용 표기가 없는 수입맥주병 △와인병 △스케트병 등 보증금 미적용 제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지역 빈용기 회수와 재사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1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빈용기 회수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3월과 7월, 각각 센터의 지원을 받아 덕진구 반환수집소(길공원 주차장 부지)와 완산구 반



환수집소(자전거경량장 서1문 앞)를 각각 설치해 수량제한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공병을 반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무인회수기 추가 도입 역시 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 거점형 반환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이번 무인회수기 도입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병 재사용 문화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면서 “무인회수기와 빈용기 반환수집소의 운영으로 전주시의 자원순환 문화가 지속해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제품 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을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할 때 환급해 주는 제도로, 재사용 표시가 있는 소주·맥주·음료병 등에 적용된다. 병용량에 따라 100원~350원의 보증금이 환급된다. /권희성 기자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제12대 전주시의회 폐회

제431회 임시회 끝으로 대의원 막 내려

제12대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대의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12대 전주시의회는 전반기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후반기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전반기 이기동 의장과 이병하 부의장, 후반기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을 중심으로 35명의 의원들이 힘 없이 달려온 제12대 의회는 8차례의 정례회와 31번의 임시회 등 모두 39회의 회기를 소화하며 1,030건에 이르는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특히 회기 중 진행된 418회의 5분 자유발언과 152건의 시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의 대안을 제시하며 전주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의회는 3특 소외 방지 및 특별자치도 성장거점 육성 촉구 건의안, '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을 발의 및 채택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리 증진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제12대 전주시의회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대의원의 막을 내렸다.

폐회식에서 남관우 의장은 “지난 4년간 전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의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제12대 의회가 시민을 위해 봉사했던 뜻깊은 여정이 전주 역사에 소중한

한 발자취로 남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36명(지역구 32명, 비례대표 4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13대 전주시의회는 내달 1일 개원해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영유아 수족구병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최근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영유아 가정 및 관련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예방 수칙 및 위생 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16일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23주차(6월 1주차) 질병관리청 수족구병 표본감시 기준으로 전국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전체 외래환자 1000명당 7.2명으로 나타나, 최근 3주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과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고, 발열, 무력감, 식

욕감소, 위장관증상(설사, 구토)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보건소는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공동물품 등 소독 관리 철저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